

‘쿠데타 경제파탄’ 미얀마의 비극...SNS 로 장기 파는 빈곤층

국민 절반 빈곤선...친인척으로 서류 위조해 인도서 수술 “같은 수술 자국 미얀마인 다수”...건강 문제 등 후유증도

지난 3년여 동안 군사 쿠데타와 내전으로 경제가 파탄에 이른 미얀마에서 생계를 위해 소셜미디어로 자신의 신장 등 장기를 내다 파는 빈곤층이 늘고 있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미국 CNN 방송에 따르면 미얀마 제2의 도시 만달레이에 사는 배달 기사 마웅 마웅(가명)은 2022년 말 반군을 위해 물품을 배달한 혐의로 군사정권에 의해 몇 주 동안 불참해서 고문당했다.

그 기간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그의 아내가 돈을 빌려야 했고 그는 이후 풀려났지만, 일자리를 잃고 무일푼에다

빚더미에 앉게 됐다. 절박한 처지가 된 마웅 마웅은 결국 페이스북에 자신의 신장을 판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당시 “돈을 위해 감도질을 하거나 사람을 죽이는 것 말고는 다른 살아남을 길이 없었다”면서 “아내도 나와 같이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저 딸 때문에 우리는 버텼다”고 말했다.

CNN은 지난 수년간 미얀마에서 마웅 마웅처럼 생존 위기에 몰린 사람들이 늘면서 장기를 팔겠다는 온라인 게시물도 점차 흔해지고 있다고 전했다.

미얀마는 2021년 2월 군부 쿠데타 이후 3년 넘게 군사정권과 반군 간 내전을



미얀마인 마웅 마웅(가명)이 인도 뉴델리 한 병원에서 신장 한 쪽을 떼주는 수술을 받은 뒤 회복 중인 모습.

겪으면서 경제가 추락했다.

내전으로 외국인 투자가 급감하고 실업자는 급증한 가운데 생필품 가격은 대다수가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치솟았다.

유엔개발계획(UNDP)에 따르면 현

재 미얀마 국민 5천400만명 중 절반 가까이 빈곤선 아래에서 살고 있는데, 이는 2017년 이후 약 두 배로 불어난 것이다.

미얀마에서 장기를 파는 사람들은 대개 중개업자를 통해 거래가 성사되면

인도로 건너가서 장기이식 수술을 받는 다.

인도 법에 따르면 장기기증은 소수 예외를 제외하면 친척 사이에서만 가능하며, 그 외에는 불법이다.

따라서 업자들은 변호사와 공증인도움을 받아서 가족 관련 기록을 위조, 장기 판매자를 이식 대상자의 배우자나 사위 또는 며느리 등 친인척으로 위장한다.

마웅 마웅의 경우 부유한 중국계 미얀마인 사업가가 그의 신장을 1천만짜(약 412만원)에 사겠다고 나섰고, 그는 이식 대상자의 가짜 사위가 됐다.

그가 신장을 판 금액은 미얀마 도시 가구 연 평균 수입의 두 배 가까이에 이른다.

결국 그는 지난해 8월 인도 뉴델리의 한 병원에서 수술을 받아 신장 한 개를

떼어냈고, 자신과 같은 수술 자국이 있는 미얀마 사람을 병원 곳곳에서 발견했다고 전했다.

마웅 마웅은 수술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충분히 회복되지 않아 주로 집에서 통증을 견디며 시간을 보낸다. 그러는 새 그가 신장을 팔아서 번 돈은 서서히 줄어들고 있다.

미얀마, 아프가니스탄, 네팔 등 많은 저소득 국가에서 장기 매매는 최후의 수단인 되고 있지만, 장기를 판 이들은 심각하고 때로는 목숨까지 앗아가는 건강 문제를 겪곤 한다.

그는 “그때 내가 그것(장기 매매)을 하지 않았으면 내 삶은 혼돈에 빠졌을 것”이라며 “내 아내와 애는 먹을 것이 전혀 없었다. 우리 가족 셋은 죽거나 미쳐버렸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해리스, 트럼프에 “TV 토론 내내 마이크 켜자” 신경전

오는 10일 ABC 주최 첫 토론 ‘음소거’ 규칙 두고 살바싸움 트럼프는 “CNN 때와 동일”

오는 10일(현지시간) 열리는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민주)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공화) 간의 첫 TV 토론을 앞두고 토론 규칙의 쟁점인 ‘마이크 음소거’를 둘러싼 살바싸움이 이어지고 있다.

해리스 부통령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에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향해 “우리는 미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다. 토론 내내 마이크를 켜는, 투명한 방식으로 토론하자”고 제안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트럼프는 라이브 마이크를 이용한 토론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측근들에게 항복하고 있다. 자기 팀이 그를 신뢰하지 못한다면 미국 국민도 그럴 수 없다”고도 했다.

두 사람 간 첫 TV 토론은 대선 경합주 중 하나인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ABC 방송 주최로 진행된다.

해당 토론은 대선 후보직을 사퇴하기 전 조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 합의했던 것으로, 발언 순서가 아닌 후보자의 마이크를 끄는 규칙을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조지아주 서베너에서 유세 도중 지지자와 손을 마주치고 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은 경쟁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앞서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두고 해리스-트럼프 양측이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는 중이다.

마이크 음소거 규칙은 지난 6월 CNN 주최로 열린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사이의 TV 토론에서 적용됐지만, 해리스 부통령 측은 이에 반대하고 있어서다.

앞서 지난달 27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소셜’ 계정에 올린 글에서 CNN

토론과 동일한 토론 세부 규칙에 민주당과 합의했다면서 토론이 일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해리스 부통령 측은 마이크 음소거 문제는 아직도 논의 중이라며 트럼프 측의 ‘토론 세부 규칙 합의’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마이크 음소거는 후보가 자신의 발언 순서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방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CNN 토론 때 채택

다. 당시 사실관계가 틀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장에 대한 즉각적 반박을 봉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트럼프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마이크 음소거에 대해 “그건 내게 중요하지 않다. 아마도 마이크를 켜 두는 게 나을 수 있다. 그러나 지난번과 같게 한다는 것이 합의 사항”이라고 말한 바 있다. /연합뉴스

‘예지력 부부?’ 노르웨이 공주, 무속인과 재혼

예지력이 있다고 주장해 논란을 빚은 노르웨이 공주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미국국적의 ‘자칭 무속인’과 재혼했다.

메르타 루이스(52·사진 오른쪽) 공주는 이날 노르웨이 예이랑에르 지역에 있는 한 호텔에서 오랜 연인인 듀렉 베렛(49)과 비공개 결혼식을 올렸다.

하랄드 5세 국왕의 장녀이자 왕위 계승서열 4위인 메르타 루이스 공주는 2002년 작가였던 아리 미카엘 벤과 결혼해 슬하에 세 딸을 뒀다. 초혼 때도 ‘평민 작가’와 신분을 초월한 사랑으로 주목을 받았으나 2017년 이혼했다.

메르타 루이스 공주는 같은 해 지인의 소개로 미국 캘리포니아 출신의 베렛과 만났고, 2022년 6월 약혼을 발표했다.

특히 메르타 루이스가 예전부터 신비주의와 대체의학에 경도돼 논란을 빚었던 터라 두 사람의 만남에 이목이 쏠렸다. 메르타 루이스는 자신이 천사와 대화가 가능하고 예지력이 있다면 서 이와 관련한 책을 내고 강연을 하는 등 공주 직함을 앞세워 돈을 번다는 비판을 받았다.

베렛도 코로나19 극복에 도움이 됐다는 허무맹랑한 주장과 함께 22달러(약 29만7천원)짜리 메달 상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해 논란이 됐다. 그는 자신이 죽었다가 부활했으며 2001년 9·11 테러를



2년 전에 예측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결국 메르타 루이스는 약혼 발표 5개월 만인 11월 공주 직함을 유지하되 왕실에서 주어진 공식 업무를 중단하고 직위를 상업적으로 활용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최근에도 라벨에 공주 직함을 새긴 주류 상품을 출시하는 등 여러 차례 약속을 어겼다.

/연합뉴스

러 캄차카 화산 인근서 헬기 실종

러시아 극동 캄차카 반도에서 20여명이 탑승한 헬기가 실종됐다.

러시아 연방 항공교통국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바치카제트 화산 인근 니콜라예카 마을로 향하던 비타즈-아에로 항공 소속 Mi-8T 헬기가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또 예비 조사에 따르면 이 헬기에는 승무원 3명과 승객 19명 등 총 22명이 탑승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GREEN GOONG PRIME EVER 120

그린궁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